

2005년 아시아 석유화학회의의 일본 개최

아시아의 주요 석유화학 생산국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시아지역 석유화학 전망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2005년 아시아석유화학공업회의(제26회)가 5월 19-20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된다.

APIC 회의에는 한국, 일본, 타이완, 싱가포르, 타이, 말레이, 인디아 등 7개 정회원국과 중국, 필리핀, 미국, 독일, 프랑스 등에서 총 1000여명의 석유화학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.

우리나라에서는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이영일 회장을 비롯해 삼성토탈 고흥식 사장, LG화학 노기호 사장, 한화석유화학 허원준 사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.

이영일 회장은 개막연설을 통해 아시아지역 석유화학업계의 협력강화를 위한 상생의 전략 찾기와 기후변화 협약 대응을 위한 전략적 협력채널 구축 등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석유화학산업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공동노력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.

회의일정은 5월19일 미국의 SRI Consulting 및 Chem Systems에서 ▲중동의 에틸렌 수급전망 ▲중국의 석유화학 수급전망 ▲아시아 프로필렌 시장전망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며, 20일에는 오전에 본회의를 개최해 ▲아시아 석유화학산업 원료 ▲중국 범용 폴리머 수급전망 등에 대해 전문가들이 주제를 발표하고 오후에는 7개 분과위원회에서 수급전망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.

<화학저널 2005/05/18>